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것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 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본문: 신명기 27:17, 잠언 22:2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세칙으로 613가지(행할 것 248가지, 행하지 말 것 365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가운데, 저주를 선포합니다. 본문은 세 번째,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17절)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를 경계하는 돌을 ‘지계석(경계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울타리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때부터 토지권, 대를 이어가는 기업, 상속권에 대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본래의 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고엘제도,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계석(경계석)은 땅의 표시일 뿐 아니라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정치적인 선택을 잘 못 하여 왕국이 분열되도록 방향성을 잃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과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게 된 ‘신앙의 경계’입니다. 지계석(경계석)은 삶의 표준이고, 선과 악의 가름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성경 말씀이 지계석(경계석)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신앙의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경계석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여러분은 세상과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순종의 기회”

마귀들이 사람을 파멸시킬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줍시다.”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줍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줍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으나 마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귀가 새로운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합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말해줍시다.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 줍시다. 그러나 구원받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시다.”** 결국 이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래 전, 미국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항해하던 증기선 센트랄 아메리카 호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배가 구조 신호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센트랄 아메리카 호의 선장은 구조선 선장에게 물이 새고 있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 날이 썰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밤중에 승객들을 구조선으로 옮겨 실을 때의 혼잡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구조선 선장은 승객을 빨리 옮겨 태워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립시다”**라는 대답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트랄 아메리카 호는 내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갑자기 불빛이 사라짐과 동시에 물속으로 침몰하여 승객 모두는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기를 뒤로 미룬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을 주신 하나님만이 내일을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THINK

믿음 생활 가운데 '지금 안해도 괜찮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늦장부리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1~3위까지를 적어보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5월 25일	6월 1일
마을특송	살롬	온유	청장년	임마누엘	무지개
대표기도	김영인 권사	김은경 권사	정미현 권사	정영숙 권사	정주영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본당청소	-	섬김	샘솟는	살롬 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 월요복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목자,교사,임원 필참)
- 어버이주일 / 일시: 5월 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 5월 둘째 주(8일)부터 <중식과 오후예배>가 시작됩니다.
- 3일(화요일) 오전부터 교회 외벽 청소가 있습니다. 더 밝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기대합니다.
-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goodnborkr).
- 세이레 개근자 메달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2층 집합) / 금주: 꿈쟁이 (다음 주: 장로회)

■ 청소/중식봉사 / 금주: 섬김마을 (다음 주: 샘솟는 마을)

■ 교우소식 ■

- 치유 중보 기도 -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김태인 집사/
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
- 출산 - 김용진/이서현 집사 가정에서 득녀하였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교만이 아니라 경건이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